

2023년 6월 4일(가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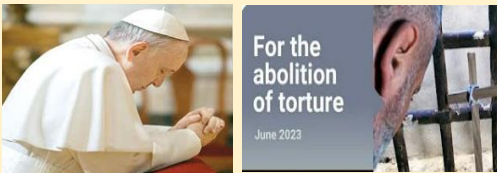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6월 ]



### 복음화 지향 : 고문의 폐지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에서 교회는 탄생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 따라 일치와 헌신의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4,4ㄱ-6.8-9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화답송** 다니 3,52ㄱ.52ㄴ.53.54.55.56 (◎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13,11-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영성체 후 묵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삶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가는 여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삼위일체**

삼위의 일치와 사랑으로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만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신비에 조금이나마 다가가 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성부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은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어 버렸지만, 성부께서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을(요한 1,18 참조), 당신과 하나이신 분을(요한 10,30 참조) 보내시어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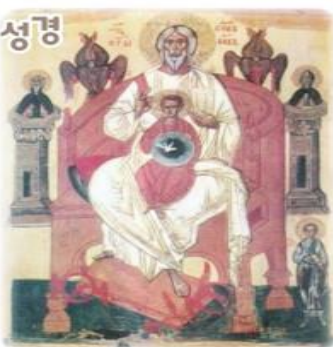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요한 13,1).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파견되신 아드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펼치신 모든 활동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고쳐 주시고, 악령에 시달리는 이들을 해방하시며, 마지막에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어 그 희생 제사로 인류가 성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요한 14,16). 성령의 파견은 하느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보내시어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견된 “진리의 영”(요한 14,17 참조)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성자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서로 친교를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 요한 4,16). 삼위께서 서로 나누시는 사랑은 고스란히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을 받게 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요한 13,34 참조) 실천하며 삼위일체를 닮은 친교를 이루게 됩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나누는 인사를 떠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제 2 독서 참조).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삼위일체’, 노브고로드 화파 작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 (Trinitas(라틴어) / Trinity(영어))**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persona)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오늘 제 1 독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계명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야훼'라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당신께서는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완고함,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독서가 성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했다면, 복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은 아들을 통해 당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시는데, **이 신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 됨으로써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미사 중에 모든 이와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출처: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하마 신부님이 들려주는 말씀이야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삼위일체의 사랑 -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오늘 다시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2 코린 13, 13)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머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광희 마태오 신부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사랑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의사랑 #예수그리스도의은총 #성령의친교 #삼위일체

**초등부 세례교육 및 첫영성체 교리반 시작을 축하합니다!**

첫영성체"는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처음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10세 전후(Year 3) 나이에 신앙 교육과 첫 고백을 거쳐 성찬에 초대됩니다. 첫영성체는 아이 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자녀의 첫영성체를 계기로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6월 11일)을 앞두고 첫영성체의 중요성을 짚어보시고(우측 영상), 이번 초등부 세례교육과 첫영성체 교리반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첫영성체**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 지극히 기록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①**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병·칼·스푼·포크·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R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②**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1.05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R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5강 탈출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안소근 수녀의 구약 종주 |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훑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8강]

삼손:다크나이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판관기 6부 | 15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결국 과학이 하느님을

찾게 되는 이유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

가톨릭 콘서트 섬

□ 미사 참례자수

5월 21일	성인 46 아이 18	5월 28일	성인 41 아이 15
--------	-------------	--------	-------------

□ 우리들의 정성 (5월 27일(토)~ 6월 2일(금))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서진원	양명식	양홍석	조성희	허준
교무금 \$500 (8 가정) / 봉헌금 \$320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6월 4일	6월 11일
	지극히 기록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독서	허준 안토니오, 이명진 이사악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4일) 요한반 → (11일) 루카반 → (18일) 마르코반 → (25일) 마테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4일) 루카반 → (18일) 루카반

※ 매월 첫째주 식사나눔시 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6월 4일	81 <a href="#">영광의 주 성삼위</a>	340 <a href="#">봉헌</a>	156 <a href="#">한 말씀만 하소서</a>	77 <a href="#">주 천주의 권능과</a>
6월 11일	169 <a href="#">사랑의 성사</a>	217 <a href="#">정성어린 우리 제물</a>	162 <a href="#">성체 성혈 그 신비</a>	201 <a href="#">은총의 샘</a>

♡ 구진표 올리바(10일) 학생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